

KIMA 2016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국제보트쇼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BEXCO 부산  MBC  kotra

후원  대한요트협회  KSPOT  한국관광공사  MBC  BPAV  부산항만공사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특별후원  스타자동차(주)  (주)골든블루

www.kimaweek.org

KIMA + Plus

JULY 2016 | Vol. 08

KIMA⁺plus 08

JULY 2016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 SPECIAL
다이나믹 부산, 다시찾는 바다

+ MEDIA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시즌 4 제작현장

+ NOW
해양문화도시 부산의 신 인류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29 < 71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71%를 차지하는 곳 -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곳 -
산소의 75%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하는 곳 -
태양열의 80%를 흡수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열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99.7%도 바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행복, 더 큰 미래 -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누구와도 닮지 말라 The CLA

시승신청 및 상담문의 | 1688-2369(Benz)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 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금 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 산	051-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달동)		울 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중로 74번길 19(삼산동)
StarClass 인증중고차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기 장	051-792-7410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047-10	
				대표번호	1688-2369(Benz)	www.mbstar.co.kr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A 200 CDI(배기량 : 2,143cc, 공차중량 : 1,560kg, 자동7단), 복합연비 18.0km/ℓ (도심연비: 15.5km/ℓ, 고속도로 연비 : 22.5km/ℓ), 등급 : 1등급, 복합CO2 배출량 107g/km
CLA 200 CDI 4MATIC(배기량 : 2,143cc, 공차중량 : 1,6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4.9km/ℓ (도심연비 : 13.5km/ℓ, 고속도로 연비 : 17.1km/ℓ), 등급 : 2등급, 복합CO2 배출량 131g/km
CLA 250 4MATIC(배기량 : 1,991cc, 공차중량 : 1,5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3km/ℓ (도심연비 : 9.9km/ℓ, 고속도로 연비 : 13.5km/ℓ), 등급 :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56g/km
CLA 45 AMG 4MATIC(배기량 : 1,991cc, 공차중량 : 1,6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0.6km/ℓ (도심연비 : 9.3km/ℓ, 고속도로 연비 : 12.9km/ℓ), 등급 :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KIMA WEEK 2016 D-100 축하 연주회 부산윈드오케스트라 '나팔을 울려라'	04
KIMA+ Special 01 다이나믹 부산, 다시찾는 바다 INTERVIEW WITH 심정보 부산관광공사 사장	06
특명! 국제 크루즈 관광객을 잡아라	10
7일 간의 휴가 in 부산 바다	12
KIMA+ Special 02 KIMA for KIDS 어린이를 위한 해양레저 입문서	16
“엄마랑 이려고 있으니까, 참 좋아” (만 원으로 누린 엄마와 딸의 요트체험 후기)	20
KIMA+ Homo Odyssey 요트맨의 원조 찰스 2세	24
KIMA+ Cine Marina 영화로 만나는 요트이야기	26
KIMA+ MEDIA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시즌 4 제작현장	28
KIMA+ REVIEW 2016 부산국제보트쇼 결산 INTERVIEW WITH 조현욱 아룬비행선박산업(주) 대표	34
사진으로 본 2016 부산국제보트쇼	38



KIMA+ Special 01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 중인
다이나믹 부산, 다시찾는 바다.
그 기분 좋은 일렁임이 시작된다.



KIMA+ Special 02
바다로 나간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해양레저 입문의 모든 것.
KIMA For KIDS



KIMA+ MEDIA
올 여름을 더욱 뜨겁게 해 줄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시즌 4의
따끈따끈한 제작현장 소식이 공개된다.



KIMA+ REVIEW
대중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눈부시게 빛났던 2016 부산국제보트쇼, 그 날의 기억



KIMA+ NOW
부산을 찾은 시나리오 작가.
신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KIMA+ WORLD
FIMAR 라스팔마스 2016
국제해양박람회에서 생긴 일



40	KIMA+ NOW 해양문화도시 부산의 신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시나리오 작가 마리나 팸투어)
44	KIMA+ WORLD 해양레저 강국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가다
46	KIMA+ SHARE 가족들의 특별한 요트 나들이
48	KIMA+ Now 미리 보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50	KIMA+ Brief 주요 단신 기사

나팔을 울려라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나팔을 울릴 때 전진하고,
나팔을 불어 승전보를 알린다

출정을 100일 앞둔 'KIMA WEEK 2016'을 응원하며
부산윈드오케스트라가 연주로 함께 해주었다

10월 5일, 개막식의 팡파르를 기다리며
KIMA WEEK 2016 파이팅!

심정보

부산관광공사 사장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이사

SIM
JEONG
BO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689만 명이던 외래 관광객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 증가하며 이제 누적 관광객 수 1,5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부산시도 올해 외국인 관광객 27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원 - 아시아 페스티벌' 등의 콘텐츠 개발은 물론,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특히 부산 관광의 힘은 해양레저에 있음을 확신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KIMA PLUS에서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 중인 부산의 이모저모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그 시작을 부산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관광공사 심정보 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열어보고자 한다.

INTERVIEW
WITH

다이나믹 부산, 다시찾는 바다

부산의 새 이름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Q A

KIMA. 창조관광 시대, 지역의 문화 경쟁력이 도시를 살립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산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심정보 부산의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자원, 도시 브랜드 등 다방면으로 고려해볼 때 부산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은 '글로벌 해양 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입니다. 세계 5대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서 10분 안에 도착 가능한 해수욕장이 7개나 있으며, 300km 이상 되는 해안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외에도 태종대, 이기대, 물운대 등 역사성과 천혜의 절경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부산이 갖는 경쟁력은 바다와 해변,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경관과 도시문화에 있습니다. 최근,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기반으로 미용, 의료 관광 등을 접목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활성화된다면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A

KIMA. 그렇다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도되고 있나요?

심정보 현재 부산 전역에 걸쳐 해양관광도시의 인프라 기틀 마련을 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산항 개항 140주년 맞이 북항 그랜드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북항과 원도심 일대를 해양비즈니스와 문화, 관광, 마이스, 연구개발 등 융·복합 산업 중심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개발에서 밝힌 가덕도 종합개발에 따라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 체류형 해양복합 관광 휴양지로 가덕도 종합관광 휴양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크루즈, 요트, 유람선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 터미널 신규 개장,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 박람회 개최, 크루즈 안내사 인력 양성 등 수용태세 강화,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운영, 수륙양용버스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륙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팸투어, 언론 매체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A

KIMA. 전 세계적으로 중화권 관광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심정보 중국인은 지난해 1.1억 명이 해외여행을 했고 그중 640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 30%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중국인의 한국 여행은 산술적으로 2천만 명을 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관광객 수용 서비스와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2박 3일, 3박 4일 일정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대규모 테마파크, 복합 리조트가 없는 상황에서 부산과 1~2시간 거리인 거제, 통영, 창원, 김해, 양산 등과의 광역 상품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중국 단체여행은 저가 위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경제 파급효과 낮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료, 웨딩, 골프, 인센티브 투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ICT 기반의 SNS, 스마트 환경에 부응하여 중국의 한국 여행 주도층을 세분화하고 타깃팅 하여 중국 관광시장의 눈길과 발길을 부산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과 환대 서비스가 부산시민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Q A

KIMA. 지역의 특색이 담긴 축제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부산 원 – 아시아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개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심정보 한류의 글로벌 킬러 콘텐츠와 부산의 콘텐츠를 접목한 ‘부산 원 – 아시아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10월 5~11일)와 부산국제영화제(10월 6~15일), 부산불꽃축제(10월 21~22일) 등 대형 국제행사 기간에 맞춰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국경일(10월 1~7일)과 대만 국경일(10월 10일)을 고려했습니다. 행사는 공

연과 전시, 부대 행사, 연계 행사로 나뉘어 20여 개 단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이를 위해 10월 한 달 간, 15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제대로 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매력 넘치는 축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A

KIMA. ‘다이나믹 부산을 다시찾는 바다’로 만들기 위해선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관광의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심정보 공사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고 이제 부산관광공사는 관광마케팅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는 물론 관광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조직의 생산성 향상, 공사 핵심 기능 강화,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공사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부산관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예정입니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요트와 크루즈 선사와 선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크루즈 유치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대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A

KIMA.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해양레저와 해양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오는 10월 ‘KIMA WEEK 2016’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심정보 공사는 앞으로 관광분야에서 부산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IMA WEEK도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KIMA+**

부산관광 SWOT 분석

▶ 출처 2016 부산관광진흥계획, 부산시

STRENGTHS 강점

크루즈 전용 터미널 증설(1▶2선식)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 및 관심 고조
쇼핑 인프라 구축
공항, 국제여객부두, KTX 등 접근성 용이

WEAKNESSES 약점

도시브랜드 해외 인지도 부족
대표 관광 콘텐츠 부재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의 영세성
직항노선 및 단체관광객 수용 인프라 부족

OPPORTUNITIES 기회

원 – 아시아 페스티벌 등 대규모 축제 개최
4계절 휴양관광단지 조성(동부산, 해운대리조트)
관광 패러다임 전환(단순 참가▶체험형 등)
말레이시아태국 등 시장 다변화

THREATS 위협

경쟁도시 간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
엔저 현상 지속
저가 단체관광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훼손
도시 관광 인프라 부족



다대포



광안리



송도



해운대



다대포

다이나믹 부산, 다시찾는 바다

특명! 국제 크루즈 관광객을 잡아라



INTERNATIONAL CRUISE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크루즈 행사 전문 회사인 영국 UBM사가 주관한 '시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16(Seatrade Cruise Asia 2016, 이하 SCA 2016)'은 지난 5월 12일부터 사흘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SCA 2016'은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개최된 아시아권 통합 크루즈 행사로 국제크루즈선사협회와 글로벌 선사 대표 주자인 코스타, 로알캐러비언 등 27개국의 주요 선사, 여행사, 항만, 크루즈 연관 산업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가했다.

컨퍼런스·전시회 및 워크숍 형태의 다양한 전문가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변화를 조명하고 한국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또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와 아태지역 1위 크루즈 선사인 로알캐러비언사, 중국춘추여행사, 부산광역시, 인천항만공사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관광 프로그램 개선, 공동마케팅 및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SCA 2016'에 참석한 스타 크루즈의 마이클 고(Michael Goh) 수석 부사장은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승객은 연평균 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아시아 전체 인구 중 크루즈를 경험한 수는 0.05% 이하"라며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했다. 또한, 프린세스 크루즈의 항만 관련 총괄 부사장 브루스 크룸라인(Bruce Krumrine)은 "한국은 인근 국가들과의 근접성이 좋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이크 큰 곳이며 항구 역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해 향후 홈 포트가 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크루즈 시장"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아시아 시장의 크루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된 가운데 동북아시아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있는 부산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아시아 최대 크루즈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은 크루즈 도시로의 가능성과 위상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월에는 크루즈 관광객이 하선해, 부산과 그 인근 지역에서 숙박과 관광을 즐기고 돌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이 개발됐다. 크루즈와 체류형 관광이 혼합된 형태로 크루즈 관광객은 육상에서 별도의 숙박과 쇼핑, 문화 관광을 한 뒤, 항공편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는 계속 증가할 추세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크루즈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돌아와요 부산항'을 개발, 부산항의 선박 입·출항 소식부터 각종 선물 구매 노하우와 여행 정보 등을 4개 국어(한·중·일·영)로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은 "앞으로 2018년 세계 최대 크루즈선을 수용하기 위한 크루즈 터미널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크루즈 관광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KIMA+

부산의 새로운 해상교통 관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연일 들썩인다.

2011년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은 5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00% 증가한 4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 약 4,350억 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크루즈선도 550% 증가한 230회로 최근 5년 사이에 부산의 크루즈 관광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선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가 불가피한 상황. 이에 부산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시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16(Seatrade Cruise Asia 2016)'을 들 수 있다.



BUSAN

다이나믹 부산,
다시찾는 바다

부산,
바다가 밀려온다



A SEVEN - DAY VACATION

7일간의 휴가
IN 부산 바다

MONDAY

가족과 多 누리자! 해운대해수욕장



6. 1 ~ 8. 31

부산 바다의 시작이자 끝인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해 1,600만 명이 다녀간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이다. 올해는 최대 100m로 한층 넓어진 백사장에서 피서객이 여유롭게 피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 피서객을 위해 대형 '워터파크'와 '해변 키즈랜드'를 운영, 미포 방면 백사장에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신나는 체험존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책 읽는 바다 카페'에서는 시원한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다. 작가와의 만남, 비치 북마켓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 계획이다. 7월 11일(월)부터 24일(일)까지는 임해 봉사실 앞 200m 구간을 밤 9시까지 개방하는 야간개장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구조대원을 증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밤바다에 몸을 담그고 해운대 해변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듯하다.



TUESDAY

싱싱함을 맛보자! 일광해수욕장



7. 1 ~ 8. 31

일광해수욕장은 수심이 얇고 파도가 잔잔해 동해 남부 해안의 해수욕장 중에서 가족동반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휴양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민박과 야영 등 숙박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근에 형성된 횡집촌에서는 싱싱한 육질의 생선회를 맛볼 수 있다. 해안에서는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고 올해부터는 육상에서 5m가량 떨어진 얇은 바다에 개량조개 4톤을 뿌려 조개 수확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일광해수욕장 중앙 이벤트 광장에 음악 분수를 조성해 피서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바야흐로 바다의 계절이 돌아왔다. 넘실대는 파도와 눈부시게 부서지는 모래사장, 그 위를 수놓는 각양각색의 파라솔까지. 상상만으로도 마음 한편에 선풍기를 켜놓은 듯한 청량감이 드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부산에는 7개의 바다가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 해운대해수욕장부터 최초의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까지. 당신에게 최고의 여름을 선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 당신은 어떤 바다를 꿈꾸는가? '1일 1해수욕'을 해도 일주일 내내 골라 즐길 수 있는 부산 바다가 밀려온다.



WEDNESDAY

낭만 위를 걸어보자! 송도해수욕장



6. 1 ~ 9. 10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은 복합 해양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수욕장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백사장의 폭도 60m로 넓혔다. 또 2005년 바다 분수대, 2006년 해엄치는 고래 모형 등대, 2008년 인공폭포, 2013년 해상 다이빙대, 2015년 해상 산책로가 차례로 들어서면서 관광객과 피서객이 몰려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들어선 해상 산책로를 3.5배 이상 늘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을 더했다. 이와 더불어 해양 스포츠의 기초와 실습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송도마린아카데미가 무료로 운영되니 참고하시라.



THURSDAY

파도에 맡겨보자! 송정해수욕장



6. 1 ~ 8. 31

1965년에 개장한 송정해수욕장은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리는 해운대해수욕장과는 다르게 부산 바다를 진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 20선'에 부산 바다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맑은 바닷물과 은빛 모래가 가득한 백사장의 품격을 뽐내기도 했다. 서핑과 캠핑을 할 수 있는 해변으로 서핑 마니아들을 위해 서핑아카데미도 열린다.

또한, 9월에는 국제 서핑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 해변에는 야영장과 함께 비치 사커비치 발리볼 등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존을 운영해 젊은이들이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



FRIDAY

바다를 달려보자! 임랑해수욕장



7. 1 ~ 8. 31

임랑해수욕장은 부산 사람들에게겐 숨겨두고 나만 보고 싶은 바다로 통한다. 왁자지껄한 해변보다 나만의 해변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곳이다. 기장의 바다는 직접 뛰어들어도 좋지만 해안길을 따라가면서 눈으로 즐기면 더욱 좋다. 특히 기장군 남쪽 끝인 용궁사에서 북쪽 끝인 대룡마을을 잇는 길은 낭만의 드라이브 코스다. 기장군의 해안길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게 등대다. 북쪽으로 연안을 따라 14개의 등대가 줄을 섰다. 유명한 것이 연화리 방파제 위 '마징가'와 '태권 V'를 형상화한 이른바 장승 등대 두 개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조용한 해변을 찾다면 임랑해수욕장으로 가자.



SUNDAY

추억으로 물들이자! 다대포해수욕장



7. 1 ~ 8. 31

다대포해수욕장은 올해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볼꽃 분수쇼와 분수 체험, 워터락 콘서트 등 '꿈의 낙조 분수'를 활용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해변에는 대형 인공풀장과 에어바운스를 갖춘 워터파크와 머드존이 들어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피서객들이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갯벌에서는 채집, 게 등을 잡으며 생태해설을 들을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카이트 보딩, 윈드서핑, 요트 같은 해양스포츠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아카데미도 연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미야방지 시스템을 도입, 미야 제로에 도입한다. 전국 최대의 일몰을 자랑하는 다대포해수욕장은 당신의 추억을 더욱 진하고 깊게 만들어줄 것이다.



SATURDAY

젊음을 느껴보자! 광안리해수욕장



7. 1 ~ 9. 10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은 올해 백사장을 두 배로 넓혔다. 넓어진 백사장에는 전남 순천만 갈대로 만든 '갈대 파라솔' 60개를 설치해 누구나 휴식을 즐기며 이국적인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자외선 차단 시설을 갖춘 '태닝존'도 선보일 예정. 광안리해수욕장의 매력인 소규모 거리공연은 올해도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다. 특히 피서철인 7~8월 해수욕장 일대는 주말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변신해 해변을 따라 음악, 춤, 연극,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KIMA *for* KIDS

어린이를 위한 해양레저 입문서

그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살지만,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 비싸다, 위험하다”라는 편견으로 답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 우리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초호화 요트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트 조종까지 경험해 볼 수 있다는데...
시원한 바다가 손짓하는 계절,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KIMA for Kids! 어린이를 위
한 해양레저 입문과정을 소개한다. 물론, 쉽고 싸고 안전하다는 거~

Step1 _ 보 트 조 종 , 어 렵 지 않 아 요

먼저, 우리 아이의 보트 조종 실력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키자니아로 가자. 키
자니아는 글로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경험한 세계적인 에듀테인먼트
브랜드이다. 이곳에 있는 상점, 빌딩, 거리의 가로수 등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물의 2/3
사이즈로 축소되어 있으며 만 3세에서 16세의 어린이들은 현실을 재현한 도시에서 어른들의 활동을 롤
플레이할 수 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키자니아 부산점은 하루 1, 2부로 나눠 두 차례 입장객을 받는데 수도권에서 검증
된 집객 능력을 발휘하며 현재 인기몰이 중이다. 무엇보다도 실제 존재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60여
가지가 넘는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중 보트조종스쿨은 지역적 특색이 담긴 체험 공간으로 키자니아 부산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보트에 대한 기본 지식과 수상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뒤 첨단 보트조종 시
뮬레이터 이용해 보트를 조종하게 된다. 마린룩으로 복장까지 갖춘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1,620m
의 거리를 운항하며 주행 중에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보트는 수영만 요트경기
장에서 출발해 광안대교 주변을 달리게 되는데 아이들은 평소 육지에서 바라본 부산의 뛰어난 해안 경
관을 바다 위에서 즐기는 듯한 감상에 젖게 된다. 또, 모든 체험이 끝났을 때 성취감과 자신감도 가지게
된다. 실제 20여 분의 보트조종스쿨 체험이 끝나고 보트를 직접 타서 다시 한 번 해양레저의 매력을 누
려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많았다는 후문.



TIP

키자니아 보트조종스쿨
더욱 저렴하게 즐기!

'KIMA PASS' 애플리케이션에서
는 각종 해양레저 정보와 함께 키
자니아 입장권 10%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KIMA PASS' 애
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
어 및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1 키자니아 부산점 실내 전경
- 2 보트조종스쿨에서는 모든 체험 후
보트 교육 인증서가 발급된다.
- 3 스포츠방송센터는 야구를 좋아하는
부산에 특화된 체험시설이다.
- 4 첨단 보트조종 시뮬레이터를 통해
보트 조종사가 되어볼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보트조종스쿨에서는 체험 수료자들에게 보트 교육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인증서를 소지한 어린이에게는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함께하는 해양레저페스티벌 '만원의 행복 요트 체험 - Kids Day 이벤트'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면 KIMA WEEK 홈페이지(www.kimaweek.org)에서 보트조종스쿨 교육 인증을 클릭하면 된다.

Step2 _ 얼마면 돼? 원빈도 올고 갈 만원의 요트 체험

보트조종스쿨로 해양레저에 첫발을 뗐다면 이제 실전에 투입될 차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해운대, 용호만 일대에는 고급 요트를 타고 부산의 뛰어난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요트 투어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는데... 지갑 사정이 염려된다면 그 걱정, 넣어둬 넣어둬 ~ '만원의 행복 요트 체험'을 잘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먼저 7월부터 9월까지,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KIMA WEEK 2016의 개최를 알리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이 진행되는데 여름 밤바다의 정취를 요트 위에서 감상할 수 있어 체험객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예약과 운항 시간에 대한 정보는 'KIMA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1인 최대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KIMA PASS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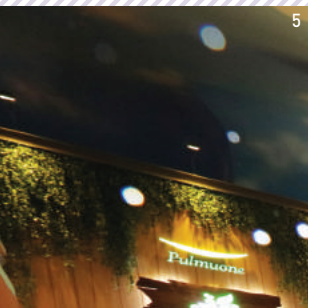


☆ 문화가 있는 날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7. 27(수) | 20:00

8. 31(수) | 20:00

9. 28(수) | 20:00



- 5 화재현장에 출동해 용감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키자니아 소방대원
- 6 과학수사대원들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미궁에 빠진 사건을 조사한다.
- 7 부산의 해안 경관을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 8 체험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또한, 10월 5일(수)부터 18일(화)까지 해양레저페스티벌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을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데 KIMA WEEK 2016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그중 10월 5일(수) 진행되는 'Kids Day 이벤트'는 어린이를 위한 요트 페스티벌로 꾸며져 아이를 둔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꼭 맞춘 요트 페스티벌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해양레저페스티벌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 Kids Day'의 신청 역시 'KIMA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 해양레저페스티벌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이벤트 데이 일정

※ 자세한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벤트 데이	일시
K 어린이와 함께 즐기는 KIDS DAY	10. 5(수)
I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INTERNATIONAL DAY	10. 6(목)
M 영화인과 함께 즐기는 MOVIE DAY	10. 7(금)
A 문학과 함께 즐기는 ACADEMY DAY	10. 8(토)
W 와인과 함께 즐기는 WINE DAY	10. 9(일)
E 음악과 함께 즐기는 EDM DAY	10. 10(월)
E 실버세대와 함께 즐기는 EVERGREEN DAY	10. 10(월)
K K-POP과 함께 즐기는 K-POP DAY	10. 11(화)



엄마랑 이러고 있으니까, 참 좋아

만 원으로 누린 엄마와 딸의 요트체험 후기

아침나절, 어둡한 하늘에 툭툭 빗방울이 떨어지기에 걱정 많은 아줌마는 얼른 일기예보부터 찾아본다. 이대로 요트체험이 무산되면 딸아이에게 큰소리 쳐놓은 엄마 체면이 영 말이 아닌 거다. 다행히 비 소식은 없고, 시곗바늘이 12시를 넘어서자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친다. 이 정도면 요트 타기 딱 좋은(그냥 그건 내 맘인 거다) 날씨가 아닌가. 자극히 보통 사람인 우리 모녀에게 요트체험의 기회가 생긴 건, 제법 설레는 일이었다. 그것도 만 원으로 요트라니. 카누도, 서핑도 아닌 요트라니! 요트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는 우리 모녀의 새콤달콤한 흥분이 기분 좋게 번지고 있었다.

일단,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도착! 주말 오후라 그런지 넓은 주차장 촘촘히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요트경기장의 광장으로 들어섰다. 그러고 보니 여기는, 해마다 영화제 기간이면 설렘을 안고 찾아왔던 곳이다. 지금은 영화의 전당으로 자리를 옮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폐막식 장소, 그 시절 이곳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던 불꽃과 팬들의 환호 사이로 눈부시게 자태를 드러내던 영화배우들, 하늘인지 바다인지와 맞닿아있던 커다란 스크린까지 20대의 내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있었다.

추억을 돌아보는 것도 잠깐, 드디어 요트체험을 떠날 오늘의 멤버들이 모여 있는 로비에 도착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친 뒤, 설레는 바다 여행에 함께 오를 참가자들과 함께 계류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인라인과 자전거를 챙겨 이곳을 찾을 때마다, 육지에 발을 디딘 모습이 아닌, 근사한 요트 위에 몸을 맡긴 나를 상상해 보곤 했었다. 눈부시게 새하얀 요트를 타고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바다를 누리는 느낌, 드디어 상상 속의 그 장면을 현실로 마주하게 됐다.

글쓴이

노은영 (방송작가, 어린이청 소년 영화읽기수업 전문위원 등 여러 개의 명함을 가졌지만 내 아이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대한민국 주부 스탠더드, 딸 하나 아들 하나씩의 알찬 구성으로 주변 엄마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요트계류장에선 가지런히 정박된 요트들이 느긋하게 햇살을 받으며 우리를 반긴다. 하늘 위로 솟은 요트의 돛대가, 미끈한 자태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하다. 계류장을 걸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제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새를 자랑하는 요트 구경에 빠져든다.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말쑥니인 초등 4학년생 딸아이는 여태 배운 영어 실력을 동원해 가며 요트마다 붙어있는 근사한 이름도 해석해 본다.

우리가 탈 요트의 이름은 루나. 환한 낮보다는 그윽한 저녁 무렵에 더 어울릴 것 같은 고상한 이름이었지만, 작고 날렵한 자태가 초여름 눈부신 바다와도 제법 잘 어울려 보였다. '루나 안녕!' 딸아이는 승선할 요트가 꽤나 마음에 들었던지 나지막한 소리로 인사를 건네고는 배에 오른다. 아이들 모두 저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차지한 다음, 배 이곳저곳을 뚫어져라 관찰하기 시작한다. 루나의 실내는 작은 침실과 화장실, 의자,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싱크대가 갖춰져 있는데, 배에 오른 아이들 모두 루나에 관한 궁금증을 연신 키를 잡고 있는 선장 아저씨에게 쏟아낸다.



모든 준비를 마친 루나가 드디어 계류장을 빠져나간다. 마치 운전을 하듯 요리조리 매끄럽게 넓은 바다를 향해 전진한다. 우리의 항로는 해운대에서 출발해 광안리를 거쳐 다시 해운대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코스. 화창하고 잔잔한 날씨 덕에 요트 위의 울렁거림이 적다. 좋은 날씨 아래 제법 내달린 요트는 어느새 광안대교 아래를 지나 광안리 앞바다에 이르러 잠잠한 파도 위에 몸을 맡긴다. 선장님이 갑판 위로 올라가 보라 권해주신다. 안전을 위해 맨발로 갑판 위를 걸어야 하는데, 새하얀 요트를 맨발로 누비는 느낌도 그만이다. 날이 좋다. 태양은 짹하다. 바람 역시 시원하다. 질푸른 바다 위에서 세상과 분리된 나와 내 아이만의 세계를 경험하고픈 로망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갑이 많아 갑판 위에는 오를 것 같지 않던 딸아이는 갑판 위를 성큼성큼 다니다 뱃머리에 자리를 잡는다. 우리 시대의 명작 ‘타이타닉’을 본 적도 없을 텐데, 본능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두 팔을 펼친다. 용기가 제법이다. 햇빛이 기분 좋게 나와 내 아이를 비춘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내 영역, 내 집 같다는 생각이 든다.

‘루나’ 주변으로 벌써 몇 번째 또 다른 요트들이 지나친다. 같이 승선한 너댓 살 된 꼬맹이들은 스쳐 가는 요트를 향해 목이 터져라 인사를 하고 손짓을 한다. 앉으나 서나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가 주는 유별난 감정 때문일까. 아이들의 인사에 상대편 배에서도 누구랄 것 없이 손을 들어 대꾸한다.

배 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수다와 웃음소리는 유난히 흥겹다.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있는 어느새 훌쩍 자란 내 아이의 뒷모습도 대견해 보인다. 드넓은 바다와 대면하고 있으니, 매일같이 붙어 지내면서 공부 문제며 사소한 일들로 아이를 들들 볶던 내 모습이 부질없게 느껴진다.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걸 요구해가며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해온 나쁜 엄마란 생각도 스친다. 어쩌면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잡고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세상을 살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 깨닫고 생각할 힘을 기르게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요트 위에서 보는 세상은 땅 위에서 보던 그것과 다르다. 눈부시게 파란 바다 위로 내 아이의 조잘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 “엄마, 엄마랑 이려고 있으니까, 참 좋아”
그래, 참 좋다…. 눈만 돌리면 바다가 있는 도시에 살면서, 바다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이 안타까울 뿐! 나 같은 서민의 일상에서도 요트가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걸 보니, 부산이 해양레저도시라는 게 실감나기도 했다.


요트 위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과 지금껏 잘 자라준 딸아이의 모습을 두 눈에 담느라 그렇게 한참을 요트 항해를 즐겼다. 딸아리와 꼭 다시 해봐야 할 버킷리스트 목록에 요트체험을 1순위로 올려놓는 순간, 다시 해운대의 마천루들이 눈으로 들어온다. 만 원의 행복은 짧았지만 짜릿했던 주말 오후로 기억될 것 같다. **KIMA+**


부산을 대표하는 요·보트에서
나만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에서
만날 수 있는 요·보트는?

	상호명 아이러브요트		
	선종 요트	선명 씨레이디	톤수 13
			정원(여객) 12


	상호명 루나요트		
	선종 요트	선명 루나(Luna)	톤수 9.16
			정원(여객) 12

	상호명 부산오션투어(B.O.T.)		
	선종 요트	선명 솔로비행	톤수 7.93
			정원(여객) 12

	상호명 아이리스요트투어		
	선종 요트	선명 커세어5(CORSAIR5)	톤수 6.1
			정원(여객) 12

	상호명 요트비컨		
	선종 요트	선명 요트비컨	톤수 6
			정원(여객) 12

	상호명 한일레저		
	선종 요트	선명 ATALANTA	톤수 9.16
			정원(여객) 12

	상호명 (주)다이아몬드베이		
	선종 범선	선명 마이다스	톤수 54
			정원(여객) 90

	상호명 요트클럽닷		
	선종 요트	선명 코랄프린세스	톤수 5.01
			정원(여객) 12


	상호명 썬마린		
	선종 요트	선명 LOVE	톤수 9.10
			정원(여객) 12

	상호명 요트탈래		
	선종 요트	선명 SOUTHERN CROSS	톤수 9.65
			정원(여객) 12

	상호명 퀸비		
	선종 모터보트	선명 퀸비	톤수 14
			정원(여객) 12

	상호명 무사시		
	선종 기타선	선명 무사시	톤수 10
			정원(여객) 12

	상호명 에어픽스		
	선종 요트	선명 마린보이	톤수 7.31
			정원(여객) 12

	상호명 (주)블루마린요트		
	선종 요트	선명 블루마린요트M76	톤수 17.0
			정원(여객) 70

HOMO
ODYSSEY

요트맨의 원조 찰스 2세



“새벽 연무에 휘감긴 템즈강,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왕조의 비운을 짊어진 채 망명생활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영국 스튜어트 왕조(The Stuarts)의 제3대 왕, 찰스 2세(Charles II ; 재위 1660~1685). 그는 왕으로 재위하던 25년간 매일 새벽 템즈강에 나가 요트를 즐겼던 요트 마니아였다. 찰스 2세의 요트 사랑이 이토록 애뒀했던 데에는 남다른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



비운의 왕자, 찰스 2세 Charles II

때는 1649년 1월 30일, 살을 에는 찬바람 속에 단두대가 세워졌고, 화이트홀 궁정 앞에는 분노한 군중이 모여 있었다. 영국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처참함으로 전해지는 찰스 1세의 처형 ...

크롬웰이 이끄는 청교도 혁명군과 영국 국민에게는 승전보였지만, 고독한 망명생활 중에 부왕의 부고를 전해 듣는 왕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었을 것이다.

격랑처럼 일어나는 분노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을 안은 채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다지던 찰스 2세는 스물한 살 되던 1651년에 영국에 잠입해 들어와 병사를 모아 크롬웰 군과 전투를 벌였지만, 실패에 그쳤다. 겨우 목숨만 건진 찰스 2세가 몸을 피한 곳은 네덜란드, 당시 네덜란드는 요트가 범람했던 나라다. 암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달래야 했던 찰스 2세는 날마다 요트를 벗 삼아 망명생활의 고통을 이겨냈다.

영국의 첫 번째 요트, 메리 Mary

9년 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로부터 찰스 2세의 왕정복귀가 선언되었다. 찰스 2세와 우정을 다졌던 네덜란드의 오린지 공은 왕정복귀를 축하하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전장 66피트의 요트, 메리호(Mary)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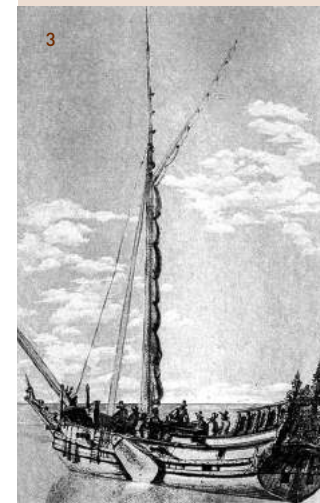
그는 국왕에 재위하던 25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요트 메리호에 몸을 실었다. 주로 템즈강이나 영국 연안에서 경주나 항해를 하며 요트를 즐겼다. 레이스를 통해 현대적인 스포츠로 요트를 즐겼던 그는 요트에 관련한 진정한 스포츠맨이었고,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사나이의 용지를 키울 줄 아는 멋진 요트맨이었다고 전해진다. 찰스 2세로부터 오늘날의 요트의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요트의 시초

기록에 의하면, 1660년 영국의 국왕 찰스 2세의 왕위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기증한 두 척의 수렵선이 요트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찰스 2세는 이후 비슷한 배를 더 건설하여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 요트경기는 1661년 찰스 2세와 동생인 요크 공작 제임스와의 경기로, 37km의 코스를 사용한 100파운드 내기 경기였다고 한다. 이후 마침내 경기로서의 요트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여러 요트클럽과 경기도 시작되었다. 1747년에는 요트경기의 규칙이 생기게 되었고 1775년에는 요트대회가 시민이 참가하는 가운데 크게 열렸다.

찰스 2세로부터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요트는 이후 20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스포츠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요트는 모험과 도전을 통해 인간의 승리를 구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아이콘으로, 고독한 항해의 반려자로서 사랑받게 되었다. KIMA+



1 The arrival of King Charles II of England in Rotterdam, 24 May 1660
해양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네덜란드 황금시대 화가인 리브 베르슈이에(Lieve Pietersz. Verschuur, 1627-1686)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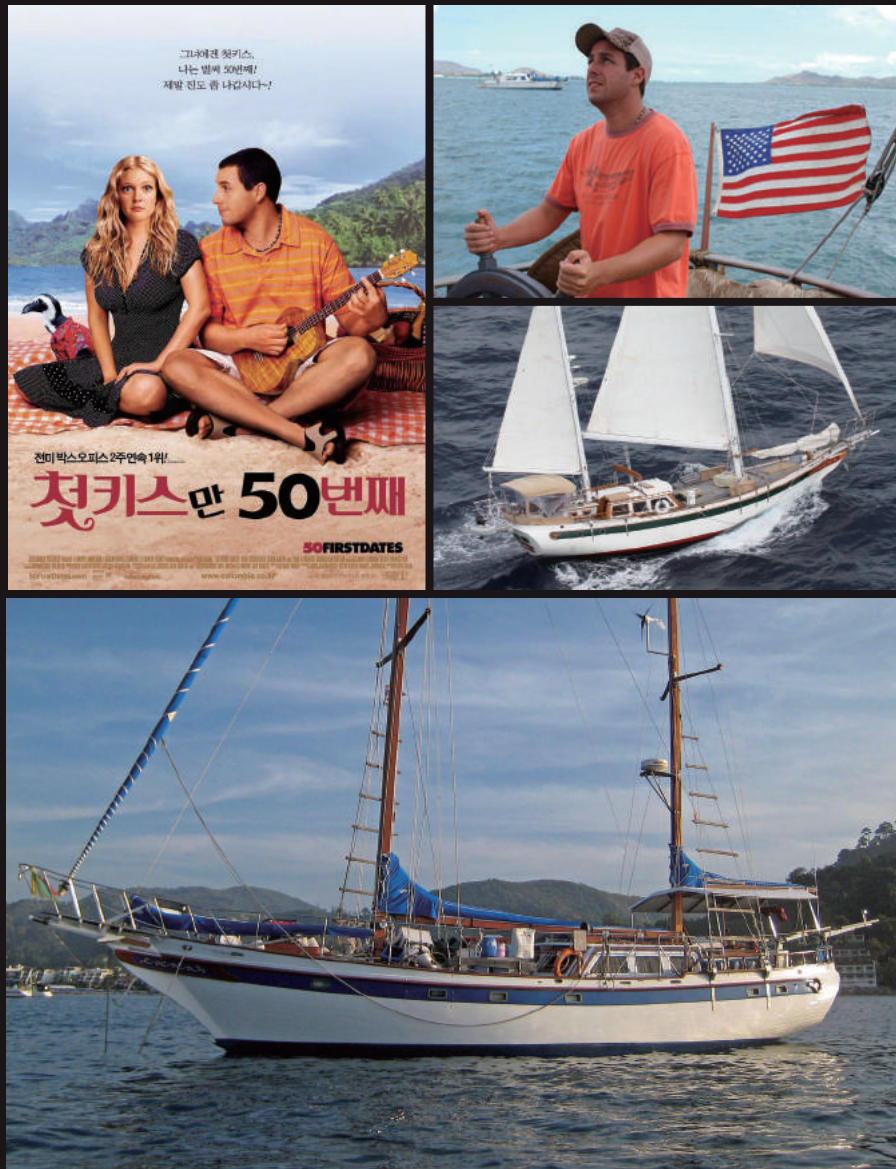
2 The royal yacht 'Mary' (1660)
영국 그리니치 왕립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메리호(1660)의 기념모형, 실제크기의 1/40

3 'William and Mary' Yacht off Greenwich
아이작 세일메이커(Isaac Sailmaker, 1633-1721)의 작품으로 영국 GAC ; Government Art Collection에서 소장
선미에 영국의 문장이 달린 요트를 그린 기록화

YACHT
MOVIE영화로 만나는
요트이야기꿈과 사랑을 요트에
모두 실은 남자

첫 키스만 50번째

낮에는 수족관의 동물을, 밤에는 하와이의 여성 관광객을 보살피는(?) 수의사 헨리(아담 샌들러). 그는 평생 많은 여자와의 가벼운 만남만 원할 뿐,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는 꺼린다. 누군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자신의 원대한 꿈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그 원대한 계획이란 홀로 배를 몰고 알래스카에 가서 해양생물 '해마'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긴 한데 관광객은 아닌 금발의 미녀 루시(드류 배리모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능수능란한 작업 솜씨로 그녀와의 첫 데이트를 성사시키는데. 다음 날, 루시는 헨리를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헨리는 실의에 빠진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것. 이미 루시에게 빠진 헨리는 자신의 계획을 뒤로 미룬 채 그녀와의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데 몰입하기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루시와의 사랑을 완성하고, 함께 알래스카로 떠난다. 이때 그들이 타고 간 요트가 Formosa 51이다. 대만의 Formosa사에서 1979년에 제작한 것으로 51 외에도 36, 37, 40, 56 등 여러 종류의 시리즈가 있으며, 51 내에도 Ketch(쌍돛대), Pilot(조종) 등의 옵션이 있다. 화려하고 세련된 외양은 아니지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이 영화의 분위기에 딱 맞는 안락함을 갖췄다. 그러면서도 알래스카의 풍광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강인함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관객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이 요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는 후문.



Formosa 51

길이(m)	선폭(m)	흘수(m)	연료탱크(L)	청수탱크(L)	최고속력(kn)
15.50	4.35	1.90	900	1,000	9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파도와 바람을 가르는 요트는 그 자체로 멋이 난다.

때문에 많은 영화에서 요트는 주인공의 오랜 꿈이자 사랑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등장하곤 한다.

그럴 때 요트는 더 이상 소품이 아니다. 영화 속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맹활약을 펼친다.

여기, 요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두 주인공이 있다. '로맨틱 무비'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와 <맘마미아> 속 요트의 활약상을 씨네 마리나에서 만나보자!



TAI-MO-SHAN (45' Teak Ketch 1933)

길이(m)	선폭(m)	흘수(m)	흘수선(m)	연료탱크(L)	최고속력(kn)
16.4	3.7	2.79	13.5	545	10

기적을 부르는
요트

맘마미아!

그리스의 한 섬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도나(메릴 스트립)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소피(아만다 시프리트)가 있다. 소피는 연인 스카이(도미니크 쿠퍼)와의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완벽한 결혼을 위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것은 바로 말로만 듣던 그녀의 진짜 아빠!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엄마 도나의 과거 일기장을 손에 넣게 되고, 자신의 아빠 후보(?) 3인에게 도나의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낸다. 샘(피어스 브로스난), 해리(콜린 퍼스), 빌(스텔란 스카스가드). 이들은 놀랍게도 모두 초대장에 응했고 우연히 만나 빌의 요트를 함께 타고 섬에 도착한다. 세 사람을 만난 소피는 완벽한 결혼을 위한 마지막 퍼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뭇 듯이 기뻐하지만 도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 영화 속 소피 아빠 찾기의 주 무대는 물론 섬이지만 빌의 요트 역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특히 샘, 해리, 빌, 그리고 소피가 함께 요트를 타고 인근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은 단연 이 영화의 백미 아닐까. 이들에게 멋진 순간을 선사하는 요트는 무려 1934년에 Hongkong & Whampoa Dock 사가 만든 Tai-Mo-Shan. 엔진도 없던 그 시절, 홍콩에서 만들어져 영국으로 항해했던 당시의 순간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어서 <Tai-Mo-Shan의 항해>라는 이름의 책도 남아있을 정도라고 한다. KIMA+

KIMA WEEK와 부산MBC가 함께 만드는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시즌 4 제작현장



속마음을



(까talk)

> 그룹 채팅 4 '바다야 놀자 재기발랄 MC 군단' 🔍 ☰

황제성
'바다야 놀자'가 시즌 4까지 왔다는 건 평소 좋아 하는 분이 많았다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괜히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다들 해양스포츠 좋아해?

정주리
나는 일단 물이 좀 무서운데... 이번 기회에 물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

샘 오취리
나야 뭐 몸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하니까... 이번 기회에 해양스포츠 각종 자격증을 따보는 게 소원이야.

예정화
짜잔~! 나는 이미 자격증이 있지롱~ 부산에 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해양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에서 하는 운동은 시원하고 똑같은 운동이라도 효과가 2배 이상이라서 나는 해양스포츠를 더 선호해.

정주리
대~~~박! 근데 나는 늘 궁금했던 게 해양스포츠를 즐기면 몸이 좋아지는 거야? 아니면 몸 좋은 사람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거야? 수영복 입고 딱 서있는 모습만 봐도 심쿵~

> 그룹 채팅 4 '바다야 놀자 재기발랄 MC 군단' 🔍 ☰

황제성
샘이 해변에 있는 모습 보면 기절 하겠네~ 샘아... 해변에선 혼자 다니지 마라.

정주리
좋아요.

샘 오취리
그나저나 형은 해양스포츠 좋아해?

황제성
나는 남자다운 거... 제트스키나 패러 세일링이 멋있더라고...

예정화
오빠가 제트스키 타면... 이런 느낌?



> 그룹 채팅 4 '바다야 놀자 재기발랄 MC 군단' 🔍 ☰

정주리
ㅋㅋㅋ 이번 시즌에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가... 얼마나 잘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예정화
근데 주리 언니는 출산한지 얼마 안 됐잖아... 더 안 쉬어도 돼?

정주리
사실.. 내 욕심 같아서는 몸을 더 만들어서 나오고 싶었거든. 여기 해변을 내가 거닐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색시해?

황제성
그래... 그랬지...

정주리
흠... 지금은 살짝 아쉽지만... 시즌 5 때는 완벽한 몸매로 시청자들의 눈을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샘 오취리
벌써 시즌 5 MC를 노리는 거? 대단한데...

> 그룹 채팅 4 '바다야 놀자 재기발랄 MC 군단' 🔍 ☰

황제성
그러지 말고 시즌 5 때는 주리가 바다에서 둘째를 수중분만하면 어때?

정주리
아! 대박~ 실제로 내가 첫째를 수중분만을 했어. 둘째는 송정해수욕장에서 방송을 통해 보여줄게. 시즌 5도 내 거야~

예정화
언니는 진짜 한다고 할까 봐 그게 더 무서워... 그나저나 우리 중에 누가 해양스포츠를 제일 잘할까?

정주리
단연 만능 스포츠맨 샘이 아닐까? 거기에 비하면 제성 오빠는 제대로 구멍이지.

황제성
이거 왜 이러셔? 오히려 배에 튜브가 부착돼 있어서 물에 잘 뜬다고. 물개가 식스팩 있는 거 봤어? 물개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에 이런 각을 만들지 않아. 물 놀이에 최적화된 몸은 바로 나라고...

예정화
그래서... 잘해?



> 그룹 채팅 4 '바다야 놀자 재기발랄 MC 군단' 🔍 ☰

황제성
이제 잘할 계획이야... 두고 보라고!

샘 오취리
와~ 이번 여름 정말 기대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 바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정주리
음... 나에게 바다는 김중구다.

샘 오취리
김중구가 누구데?

정주리
우리 남편. 바다를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잖아... 사랑해 여보~♡

황제성
아.. 나도 이거 할걸... 아깝... 그럼 나에게 바다는 제성 주니어다? 수중분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이지. 얼마나 성스럽고 안락하니?

샘 오취리
들 다 송정해수욕장에서 수중분만 하는지 지켜보겠어! 그럼 정화 누나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야?

> 그룹 채팅 4 '바다야 놀자 재기발랄 MC 군단' 🔍 ☰

예정화
나에게 바다는... 썸남이다. 바다는 올 때마다 괜히 설레고 떨리잖아. 웬지 모를 긴장감과 기대감이 오가니까. 부산 바다는 그런 썸남 같은 존재 아닐까? 샘은 어떻게 생각해?

샘 오취리
나에게 바다는 꿈이 담겨 있는 나의 미래야. 파도치는 걸 보면 나의 꿈들이 워든 어서 도전하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 '바다야 놀자' MC도 나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

황제성
그럼 우리 올여름 부산 바다에서 청춘을 불태워 볼까? 바다야~

정주리
놀자!

샘 오취리
놀아 보입시데이~

예정화
파이팅!

사진으로 보는



두근두근 첫 촬영장!!





INTERVIEW
WITH

2016 부산국제보트쇼
올해의 보트상 수상기업

아론비행선박산업(주) 조현욱 대표

Q

KIMA. 아론은 어떤 기업인가요?

A

조현욱 대표 아론비행선박산업(주)는 2012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비행선박을 독자적인 기술로 연구 개발 및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고도 상승비행 성능을 가진 B-Type 비행선박(위그선)을 생산합니다.

Q

KIMA. B-Type 비행선박이란 무엇인가요?

A

조현욱 대표 비행선박이란 갈매기가 수면 위를 낮게 날 때 날갯짓 없이 미끄러지듯이 비행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선박입니다.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비행선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Type은 해수면 가까이 떠서 비행하는 비행선박을 말하고 B-Type은 법적 제한 고도인 150m까지 고도 상승해서 비행하는 비행선박을 말합니다. 아론에서 만든 위그선은 고도 유지비행이 가능한 비행선박으로 이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아론은 10년간의 연구개발 투자로 비행선박 완제기를 독자기술로 개발 성공하고 실험상 16만 km 시험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

부산바다 위를 나는

기분 좋은 상상,

아론의 기술력으로

현실이 됩니다.

”

Q

KIMA. 어떤 제품들이 개발돼 있나요?

A

조현욱 대표 아론의 비행선박은 군사, 구조, 여객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인승급 M50, 8인승급 M80, 해상구조용 MR80, 군사용 MK80 등이 개발돼 있습니다. 2016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올해의 보트상을 받은 제품은 M80입니다. 현재 20, 30인용 비행선박을 개발 중입니다.

Q

KIMA. 아론비행선박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조현욱 대표 항공과 조선기술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행선박은 항공기와 선박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일반 선박과 동일하게 저속부터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고 이수 후에는 수면 위 3~5m 높이에서 시속 220km 속력으로 고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상 상황이나 임무에 따라 150m까지 고도 상승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도 높아 동급 선박이나 항공기 연료 소모량의 30~50%에 불과하고 휘발유 200ℓ로 800km의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선박 1척당 가격은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내로 선박보다 수익성이 5~10배 높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불립니다.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비행선박 상용 운항이 최초로 시작되면 현재 여객선으로 약 4시간 걸리는 포항~울릉 운항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돼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KIMA. 비행선박의 승선감은 어떤가요?

A

조현욱 대표 비행선박을 개발할 때 모든 기술이 국내 최초로 시도되다 보니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선박을 탈 때면 힘들었던 모든 과정을 잊게 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은 물론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연료 효율도 높아 사업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천 명 정도 태워드렸는데 획기적인 신기술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승선 의사를 밝혀 오며 비행선박의 사업 가능성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 01 5인승급(M50)
- 02 8인승급(M80)
- 03 해상구조용(MR80)
- 04 감시정찰군사용 (MK80)

Q

KIMA. 비행선박의 진출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중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A

조현욱 대표 아론은 여객, 탐색, 해상관광, 구조, 감시 정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중 구조·구난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론비행선박은 헬기의 1/10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3배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는 운항능력, 거기에 바다에 내릴 수 있는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어 구조·구난 시장에 투입된다면 획기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KIMA. 앞으로 부산시의 해양관광사업 모델로도 사용될 수 있을까요?

A

조현욱 대표 아론은 2016 부산국제보트쇼에 참가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의 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에서는 부산을 기점으로 경남 통영 장사도를 20분대에 연결하는 해상택시 사업과 경북 울릉도를 1시간대 연결하는 신 개념 해상여객 운송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부산시 및 경상남도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중입니다.

Q

KIMA.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조현욱 대표 한국선급(KR)으로부터 올 2월, 비행선박 상용화에 필수적인 AIP(Approval in Principle)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비행선박 조기 상용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 공동 작업반도 구성했습니다. 국제적 선급인증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포항~울릉 구간 여객수송용 비행선박의 건조와 상업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론의 비행선박은 세계시장에서 차세대 미래 해양운송수단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비행선박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차기 기종 연구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조선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KIMA+**

◀ 조현욱 아론비행선박산업(주) 대표가 2016 부산국제보트쇼 전시 부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비행선박 3D 가상체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체험객은 3D 가상체험을 통해 비행선박을 타고 바다 위를 나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아론비행선박산업(주)의 수면 비행선박 M80 모델은 혁신성과 뛰어난 디자인, 성장성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2016 부산국제보트쇼 「올해의 보트상」대상을 받았다. 올해의 보트상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상으로 최고 훈격이 격상됐다.



▲ 이르면 내년 상반기 포항-울릉 간 비행선박의 운항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아론의 직원들은 바다 위를 나는 차세대 운송수단 상용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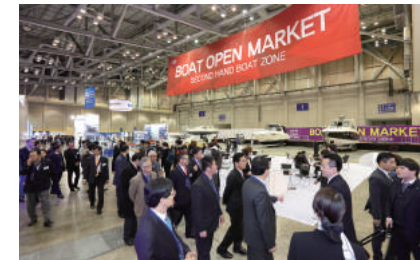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2016 부산국제보트쇼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벡스코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2016 부산국제보트쇼'가 흥행과 수출 상담 등 모든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레저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146개사, 1,052개 부스 규모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 2만 5천여 명, 수출상담액 1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가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등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됐다. 특별히 올해는 국제선박 표준 네트워크로 유명한 IMEA(NMEA)가 해외협력기관으로 참여,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전시회의 주요 성과를 사진으로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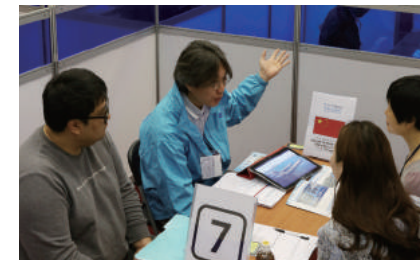


주요 업체 참가, 국내외 바이어 유치 대 성공



01

산업계의 요청으로 3월에 열린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확장된 규모에 다양한 품목이 출품돼 보트산업 관계자와 관람객의 호응이 뜨거웠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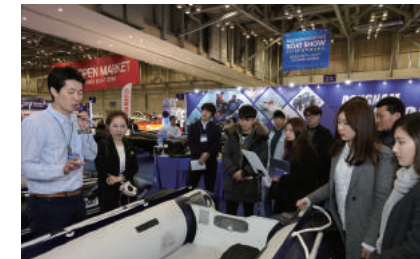
전시회에 참가한 한 업체는 중국의 회사와 한 건에 340억 원의 수출의향서(LOI-Letter of Intent)를 맺어 참가업체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2016 부산국제보트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03

'제1회 대한민국 보트디자인 지명공모전'에서 여러 대의 보트가 해상에서 모듈(module)을 이뤄 하나의 휴양지인 섬을 형성한다는 컨셉트로 영남대 서승희 학생이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04

해양레저 관련 분야 고용 창출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전시장 투어와 취업 Q&A, 취업선배의 멘토링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05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IMEA(NMEA)의 기술세미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각국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전시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주)벡스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IMEA는 공동 MOU를 체결했다.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즐길 거리



06

KIMA WEEK 2016 홍보부스에서 운영한 첨단 보트조종 시뮬레이터, 직접 보트를 타는 것 같은 스릴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관람객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07

올해 처음 선보인 마린룩 패션쇼는 관람객에게 래시가드, 서핑복 등의 트렌드를 소개하며 해양레저를 즐기는 노하루를 선보였다.



08

실내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카약과 카누, SUP 체험과 더불어 미니 보트를 조종해 볼 수 있는 RC 보트 조종 체험까지 흥미진진한 시간이 이어졌다.



09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해상전시장. 요트 관람부터 시승까지!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보트쇼의 성공적인 개최가 10월에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에서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KIMA+

해양문화도시 부산 신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다

‘시나리오 작가 마리아 팸투어’

WHAT IS — NEXT?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말이 있다. 딸 하나를 잘 키웠더니 열 아들 못지않은 효도를 한다는 뜻이다. 이 속담을 요즘 사회에 맞게 적용해 보면 ‘잘 키운 드라마 하나, 열 기업 안 부럽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는 국내외에 각종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광고 효과는 물론, 국내 관광지 개발 등 각종 산업 부문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주고 있다.

실제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눈 오는 날에는 치맥이 딱’이라는 전지현의 한 마디에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른바 ‘치맥’ 열풍이 불었고, 2016년 3월 중국인 4,500명이 인천 월미도에서 치맥 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중국인 3,500명이 한강변에서 ‘삼계탕 파티’를 열었는데 이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와 진구가 군복에 앞치마를 두른 채 송혜교와 김지원에게 삼계탕을 요리해 선물한 장면이 계기가 됐다. 이처럼 성공한 문화 콘텐츠가 갖는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
제 평생에 이렇게 셀카를
많이 찍은 것도 처음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부산
바다에서 받은 에너지를
글로 옮겨보고 싶어요.
”



“
감천문화마을 특유의
감성과 정서가 담긴
예쁜 단막극을
써보고 싶어요.
”



2016년 5월 25일, KIMA는 반가운 손님을 맞았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소속된 작가 24명이 부산을
찾은 것인데 부산의 우수한 해양레저 콘텐츠를 온몸으로 느끼고 영화나 드
라마 등의 시나리오에 이야기거리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신 한류 콘텐츠로서의 부산의 가능성
을 발견하기 위해 1박 2일 코스로 부산을 방문한 작가들은 해운대의 한
횃집에서 점심을 가진 뒤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향했다.
요트에 몸을 실은 작가들은 광안대교, 오륙도, 해운대, 이기대, 동백섬, 마
린시티 등 아름다운 바다와 현대적인 도심건물을 선상 위에서 감상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기도 하고 멋진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작가 중 요트를 처음 타보는 사람이 대다수였는
데 바다에서 바라본 부산은 생각보다 운치 있고 요트 체험 역시 기대 이
상이라는 소감을 남기며 신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의 힘은 해양레저문화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
오후에는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를 지나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감천문화마을로 향했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중구 보
수동에 본부를 두었던 태극도 교도가 집단 이주하며 형성된 마을로 천마
산 기슭의 좁은 골목길과 저층형의 옛 주택들이 조화를 이루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곳이다. 작가들은 지역민의 설명을 들으며 미로처럼 얽힌 골
목 사이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작은 수첩에 연신 무언가를 적적이며 감천
문화마을 특유의 감성과 정서에 매료됐다.

저녁에는 마린시티 워터 프런트로 유명한 더베이 101의 야경을 배경으로
치맥 파티를 열었다. 더베이 101은 이미 각종 방송 촬영지로 유명세를 치
른 부산의 핫 플레이스로 작가들에게 아름다운 부산의 이미지를 각인시
키기에 충분했다. 작가들은 부산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힘은 단연
해양레저문화에 있다고 입 모아 이야기했다.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체험이 바로 요트라며 이에 대한 홍보
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바다 하면 해수욕
을 떠올렸었는데 부산의 우수한 해양관광 상품을 경험하며 해양레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관광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 그 이상이다. 문화는 관광지를 알
리고 그 지역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작가들을 통해 새롭게 쓰일 부산의 해양레저문화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고 부산의 이미지를 고양할 것이다.

앞으로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한류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
누가 알겠는가. 부산의 마린사 시설에서 외국인들이 동래파
전에 막걸리를 즐기는 날이 올는지... 신 한류 콘텐츠로서
손색없는 해양문화도시 부산의 우수한 해양레저문화를 미디
어를 통해 만날 수 있길 간절히 기다려본다. CIMA*

REPORTAGE

해양레저 강국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가다

FIMAR 라스팔마스 2016 국제 해양박람회

2016년 5월, 라스팔마스에서는 아주 특별한 해양축제가 펼쳐졌다.
바다의 문화와 푸른 경제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둔 FIMAR 라스팔마스 2016 국제해양박람회.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에서는 KIMA WEEK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LAS PALMAS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송천행 팀장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그란 카나리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라스팔마스는 예부터 대서양의 길목으로 아프리카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으로 활용됐다. 한국 원양어업의 최대 전진기지로도 잘 알려진 이곳은 연간 관광객 1,300만 명이 찾아오는 휴양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며 어로 규제의 강화로 수산업이 퇴조하자 라스팔마스는 해양 플랜트와 해양레저의 중심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FIMAR 라스팔마스 2016은 스페인이 해양레저 강국임을 입증하는 국제행사 중 하나였다. 서핑스쿨, 해양장비업체 등 총 129개 사가 참여, 해양레저용품부터 선박부품, 수중로봇 등 다양한 제품의 전시가 펼쳐졌다. 또한, 해양레저 체험행사와 응급처치 실습, 미식 전시회와 콜럼버스 항해길 따라 별과 함께 항해하기 등의 이색적인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돼 무려 41,147명이 다녀가는 등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개막행사였는데 야외에서 진행돼 시민들이 부담 없이 관람하며 자유롭게 체험을 즐길 수 있었고 아이들이 세리머니에 동원돼 보다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축제의 시작을 알릴 수 있었다.

KIMA WEEK와의 협력 방안을 의논하기 위한 본격적인 자리가 마련됐다. 카나리아 박람회 기관인 CMC(Cluster Marítimo de Canarias)의 Elba Bueno Cabrera와의 면담에서

KIMA WEEK를 소개하고 FIMAR 라스팔마스 2016의 운영방식과 이색 프로그램 기획 등, 행사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CMC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KIMA WEEK 2016 국제컨퍼런스 연사로의 초대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앞으로 CMC와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협약(MOU)에 서명함으로써 파트너 기관의 지위를 갖고 공동발전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양국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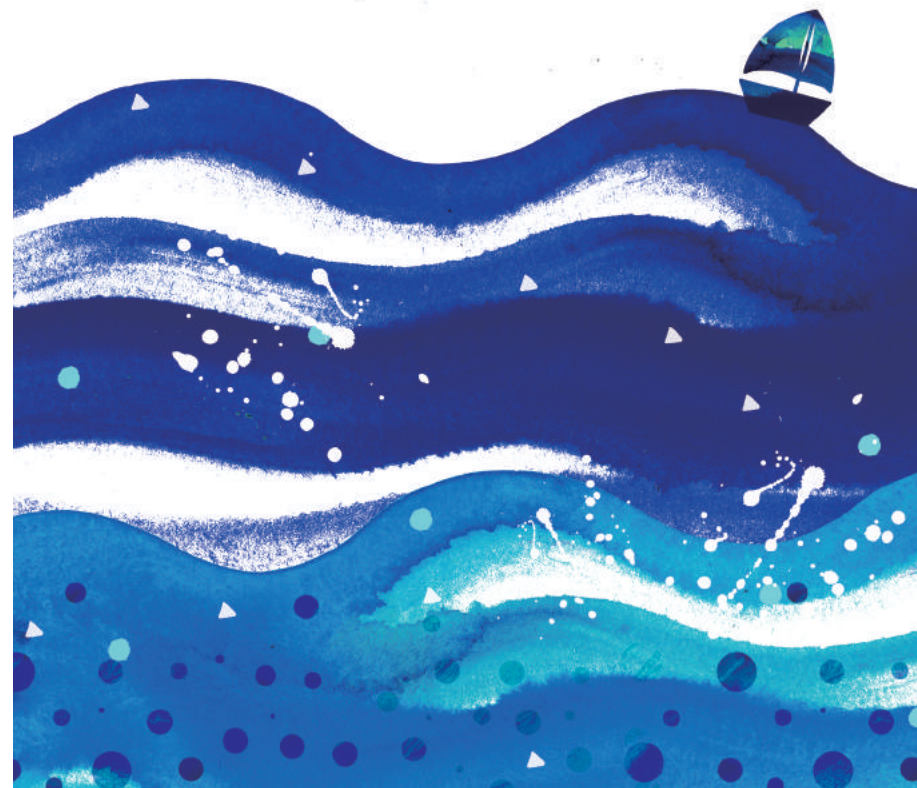
한편, FIMAR 라스팔마스 2016에서는 한-스페인 국제해양포럼(Korea Ocean Week 2016)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항만,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 푸른 경제에 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돼 포럼 참가자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국제해양포럼을 통해 한국과 스페인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요트, 원색의 콘트라스트가 강렬한 도시, 라스팔마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해양레저산업의 동향을 확인하고 KIMA WEEK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CMC와의 협약을 통해 KIMA WEEK 2016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본다. KIMA+



FAMILY
MONTH

희망을 나누다 가족들의 특별한 요트 나들이



대한민국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을 선도하고
해양레저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사회 공헌활동을 가졌다.



Share hope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요트체험'을 마련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5월 5일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된 '가정의 달 요트체험'에는 약 300여 명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요트를 처음 탄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요트를 둘러보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광활한 부산 바다를 누렸다. 1시간여 동안 광안대교와 해운대, 동백섬과 마린시티 등 부산의 랜드마크를 선상에서 즐기며 색다른 추억을 남긴 참가자들은 연신 카메라로 사진을 남기기 바빴다. 참가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갈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좋은 기회에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받게 돼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이 될 것 같다"라는 소감도 들을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요트 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았다"라며 "이후 부산의 해양레저산업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참가자도 있어 '가정의 달 요트체험'이 유익한 자리였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평소 접하기 힘든 해양레저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색다른 경험과 공감을 통한 문화의 양극화를 줄이고 차세대 해양 리더 육성에 도움이 된 이번 행사.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기획,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KIMA+



Special family
Yacht outing



KIMA 2016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2016.10.5(수) ▶ 10.11(화)**
부산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일원, BEXCO

주제_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축제

미리 보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이하 KIMA WEEK 2016)가 오는 10월 5일(수)부터 11일(화)까지, 일주일간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수영강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KIMA WEEK 2016에는 정부 관계자, 요·보트 비즈니스 CEO, 학계 및 시민 등이 참가해 새로운 해양문화를 알리고 이를 경험할 예정이다.

올해는 10월 5일(수) 개막식을 시작으로 **선상 퍼레이드(광안리 해수욕장), 국제컨퍼런스, KIMA Awards,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 홍보관, 해양레저페스티벌 –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그중 주목할 만한 행사라 할 수 있는 국제컨퍼런스는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오프닝 세션은 영화배우이자 KIMA WEEK 2016의 홍보대사인 정준호가 사회를 맡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일반 시민도 쉽고 재미있게 해양레저산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열리는 '해양레저인의 밤'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차 대회에 초청된 외국인 연사를 국제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한국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레저페스티벌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은 10월 5일(수)부터 18일(화)까지 2주간 계속되며 KIMA WEEK 2016이 열리는 일주일 동안은 매일 특별한 대상을 초대해 이벤트 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IMA WEEK 홈페이지와 KIMA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KIMA WEEK 2016의 개최를 알리고 사전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을 진행, 750여 명의 체험객은 단돈 만 원으로 요트 위에서 밤바다의 아름다운 정취를 감상할 수 있다. **KIMA+**

부산의 가을을 더욱 로맨틱하게 물들일 KIMA WEEK 2016!
축제의 날이 어서 오길 손꼽아 기다려 보자.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홍보관 모집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에서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홍보관을 운영할 해양레저분야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모집한다.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홍보관은 KIMA WEEK 2016이 시작되는 10월 5일(수), 벅스코에서 펼쳐지는 개막식, 국제컨퍼런스와 함께 운영될 예정이며 참가업체는 관람객들에게 기업을 홍보하고 인재와 소통할 수 있는 채용 상담 기회도 얻게 된다. 또한, 관련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도 있다. 참가자격은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조직을 홍보하고 향후 고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7월 29일(금)까지 KIMA WEEK 2016 그랜드 오프닝 및 국제컨퍼런스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홍보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KIMA WEEK 사무국

Tel. 051-760-1130 Fax. 051-760-1134
www.kimaweek.org

KIMA WEEK 2016 그랜드오프닝 및 국제컨퍼런스 사무국

Tel. 051-711-0042 Fax 051-747-7030
kimaweek@naver.com

KIMA BRIEF



제2회 부산미래전략캠퍼스 참가

2016. 3. 9~11 백스코 제1전시장 3층 회의실
지식융합 미래전략 세미나, 부산미래전략캠퍼스에서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500개사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오갔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여한웅 사무총장은 해양레저관광 세션인 '부산의 미래'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KIMA WEEK 2016 일정과 부산국제보트쇼를 소개했다. 해양레저와 마리나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FIMAR 라스팔마스 2016 탐방, CMC와 업무협약 체결

2016. 5. 4~10 스페인 라스팔마스
FIMAR는 매년 5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박람회이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에서는 KIMA WEEK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 FIMAR 라스팔마스 2016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박람회를 둘러보고 카나리아 박람회 기관인 CMC (Cluster Marítimo de Canarias)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16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KIMA WEEK 2016 홍보부스 운영

2016. 3. 10~13 백스코 제1전시장
146개사 1,052 부스 규모로 마련된 2016 부산국제보트쇼는 관람객 2만 5천여 명, 수출상담액 1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KIMA WEEK 2016의 홍보부스를 운영, 일정과 체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또, 첨단 보트조종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해양 레저의 쾌감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요청으로 3월에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연일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시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16

2016. 5. 12~14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시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16은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개최된 아시아권 통합 크루즈 행사이다. 27개국의 주요 선사, 여행사, 항만, 크루즈 연관 산업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개최된 아시아권의 크루즈 행사 중 가장 성황리에 개최된 행사로 기록됐다.



제1차 홍보방송위원회 회의

2016. 4. 7

2016년 제1차 홍보방송위원회가 열렸다. 먼저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조정호 차장이 홍보방송위원으로 임명되는 위촉식이 진행됐고 문화라는 키워드로 진행될 KIMA WEEK 2016의 홍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부터 유료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는 해양레저페스티벌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에 대해 세심한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고 키자니아에 문을 연 보트조종스쿨을 잘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업체 설명회

2016. 5. 18 부산MBC 소회의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에서는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가업체 간의 협의를 위해 5월 18일, 업체 설명회를 가졌다.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에 참여하는 업체는 15개 남짓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7월 27일, 8월 31일, 9월 28일 마지막 항차와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프로그램을 도맡게 된다. 참가업체들은 요트 차트비 책정안과 KIMA WEEK 2016 개막 당일 펼쳐질 해상 퍼레이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더욱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16. 6. 2 더베이 101

지난 6월 2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더베이 101에서 열렸다. (주)백스코 이수인 팀장의 2016 부산국제보트쇼에 대한 성과 보고가 진행됐고 이후 KIMA WEEK 2016에 대한 본격적인 회의가 오갔다. 운영위원들은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 10월 5일(수), 14시부터 18시까지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해외 연사와 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16 상반기 요트 컨벤션

2016. 6. 22 더베이 101

이사회 구성원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에게 해양관광 육성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2016 상반기 요트 컨벤션이 6월 22일 더베이 101에서 마련됐다. 총 15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선셋 투어와 음식이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부산 바다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해양레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 앞으로 부산 마리나 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제2기 KIMA WEEK 명예기자단 최종 선발

2016. 6. 7~8

KIMA WEEK 2016을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할 제2기 KIMA WEEK 명예기자단이 최종 선발됐다. 명예기자단은 총 2차에 걸쳐 (1차: 3. 7~4. 15 | 2차: 5. 9~27) 모집됐으며 총 18명이 제2기 KIMA WEEK 명예기자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이들은 KIMA WEEK 2016이 펼쳐지는 10월 5일(수)부터 11일(화)까지 축제를 직접 즐기며 SNS 홍보와 영상제작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제2, 3차 기획조정단 회의

제2차 _ **2016. 4. 14** 제3차 _ **2016. 6. 24**

KIMA WEEK 2016 기획조정단 회의가 지난 4월 14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KIMA WEEK 2016의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 콘셉트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펼쳐졌고 '만원의 행복 요트체험'과 관련, 참가자에게 선물할 기념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SNS를 통한 홍보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이를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했다.



KIMA WEEK 2016 D-100 축하 연주회 부산윈드오케스트라의 '나팔을 울려라'

2016. 6. 27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KIMA WEEK 2016을 100일 앞둔 6월 27일, 이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부산윈드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회, '나팔을 울려라'가 금정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부산, 경남 관악 연주자들이 중심이 되는 부산 윈드오케스트라는 지휘자 백진현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해 많은 관객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부산 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연주자 장재혁, 소프라노 김승리와 협연하고,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판타스틱 듀오' 에일리언에 출연한 부산은행 직원 박진진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객들은 정통 클래식부터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관악곡들을 들으며 KIMA WEEK 2016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엽니다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_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KOREA MARINE LEISURE NETWORK_ 69, Gampo-ro 8beon-gil, Suyeong-gu, Busan, Korea
T. +82 51 760 1130 F. +82 51 760 1134 E. komalnet@naver.com

KIMA WEEK 2016 조직위원회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 일정 2016년 10월 5일(수)~11일(화) / 7일간
- 장소 부산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일원, BEXCO
- 주제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축제

Grand Opening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4:00
- 장소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국제컨퍼런스

- 주제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4:40
- 장소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제2회 KIMA Awards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4:00
- 장소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홍보관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4:00
- 장소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로비

해양레저페스티벌-만원의 행복 요트체험

- 일정 2016년 10월 5일(수) ~ 10월 18일(화) / 2주간
- 장소 수영만요트경기장, 데베이101요트클럽, 삼다다이아몬드베이
※ KIMA PASS앱에서 사전예약

어린이 해양레저 직업체험 페스티벌-보트조종스쿨

- 일정 2016년 4월 8일(금) ~ 연중
- 장소 신세계 센텀시티몰 4F 키자니아 부산점
※ KIMA PASS앱 회원가입시 10%할인티켓 발급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 제목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 시즌4
- 방송일시 2016년 6월 26일(일) 첫방송 매주 일요일 오전 10:00 / 총8회
- 출연진 이정화, 황재성, 샘 오취리, 정주리

해양레저 다큐멘터리

- 주제 해양레저도시의 축제와 마리나 산업
- 방송일정 2016년 10월 초 방송예정

연계행사

제4회 부산국제보트쇼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 26일(일) / 4일간
- 장소 해운대 BEXCO 제1전시장(육상), 수영만요트경기장(해상)

제5회 광안리 달빛수영대회

- 일시 2016년 9월 24일(토)
- 장소 광안리 해수욕장

제6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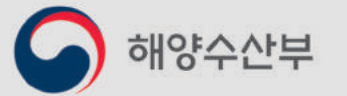
-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 9월 4일(일)
- 장소 수영강 APEC 나루공원

www.kimaweek.org

KIMA 2016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 마리나가 열겠습니다.

일자리
12천개



경제효과
1조원



레저선박
3만척,
요트면허
25만명



1 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화
마리나



- 복합 문화공간 시설 지원
- 지역별 마리나 특화전략 마련

네트워크
구축



- 요트 계류부이 설치(10개소)
- 아촌 마리나역 육성(16개소)
- 거점 마리나항 개발(6개소)

투자확대



- 마리나수역 점·사용료 감면
- 민간투자 장벽 해소

2 마리나·요트 관광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체험기회
확대



- 전국 60개소 체험교실 운영
- 체험교실 자유학기제 연계
- 해양스포츠타워 지원 확대

보트쇼 등
관광컨텐츠



- 대한민국 대표 보트쇼 육성
- 마리나 관광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업
활성화



- 마리나 서비스업체 100개 창업
-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3 국산 레저선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



- 해외보트쇼 참가비 지원
- 유명보트쇼 한국관 개설

고부가가치
R&D



- 슈퍼요트, 융복합소재 개발
- 유망 신기술 R&D발굴



시장
제도개선



- 레저선박 지방세 과세 합리화
- 노후 레저선박 안전검사 강화

골든블루 사피루스, 다이아몬드, 서미트 대한민국 위스키의 새로운 기준

국내 최초 부드러운 저도 위스키 시장을 선도한 리더
2016년 1~3월 누계기준 국내 판매 2위 브랜드 등극
세계 위스키 전문가들이 인정한 우수한 맛과 품질



DRINK SMOOTHLY 골든블루는 부드러운 음주문화를 선도합니다.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해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선6기**
글로벌해양수도 부산에서 바다의 힘으로
희망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에게 바다란,



바다에서 발견한
무한한 가능성들로 **신해양경제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